

## 너무나 그리운 또 하나의 조국에서

한 승 아(농민, 전농 경남도연맹 총무부장)

7월 15일 오후부터 도별 퀴즈대회, 참가자 수첩을 만들고 16일 음식준비로 부랴부랴 밤9시가 넘어서자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한다. 집결시간은 아직 남았는데 모두 북녘 농민들을 만난다는 들뜬 마음에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고 함께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환송해주는 사람들이 섞여 농민회 사무실 앞은 북적거렸다.

짧은 환송식을 마치고 16일 밤 10시 속초항으로 향했다. 9시간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아침은 준비해온 주먹밥으로 해결, 아직까지 여느 때처럼 농민대회 가는 기분이다.

출정식을 마치고 속초항에 도착해보니 여객터미널 출구는 팔도에서 올라온 젓갈, 감귤, 고추, 오이, 각종 씨앗 등 농민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담긴 선물들로 가득 쌓여있다.

승선 1시, 말도 안 되는 통일부 교육을 받고 나니 4시였다. 그때까지 돌아가지 않으시고 부두 끝까지 나와 손 흔들어 주시던, 장전이 고향이라는 장기수 선생님! 아, 선생님.....배가 출항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을까? 가뭄으로 인한 일정연기, 현대의 황포 때문에 행사가 불투명해졌을 때, 배편이 설봉호로 바뀌어 400명이나 인원을 감축시켜야 했을 때의

난감함.... 하지만 출항하면서부터 그때까지 불거졌던 문제들이 정말로 감쪽같이 해결되었다.

바다 저 멀리 보이는 육지, 어디까지가 남쪽 땅이고 어디까지가 북쪽 땅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어리석은 일이었다. 처음 보는 땅을 보고 알 수 없을뿐더러 남과 북은 원래 하나였는데 외세가 갈라놓은 선을 가지고 가른다는 것이 내 마음에 분단을 새기고 있는 것일 수 있었다.

배가 장전항에 도착할 때가 되어가자 “배가 온다” 하는 소리에 모두들 그 쪽으로 모여든다. 모두들 처음 보는 북녘 사람들을 보려고 고개를 힘껏 빼내어 본다. 그 배는 한사람을 내리고 다시 돌아간다.

해가 진 장전항은 단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이때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을까? 장전항 건물 안이 ‘13조’, ‘8조’ 하며 부르는 소리 가득하다. 저마다 조금이라도 빨리 북녘땅에 침투(?)하고자 남녘 농민들 반별, 조별로 줄도 잘 선다. 처음으로 가까이 얼굴들 대어보는 북녘 사람인 세관원에게 얼굴에 힘을 주며 웃어본다. 그리고 큰소리로 “수고하세요”

현대 땅(?) 온정각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웨이터 아저씨가 “평양소주 하실 분” 하며 외친다. 우리 테이블이 눈빛으로 증지를 모으고 “저요”하고 외쳤더니 웨이터 아저씨 평양소주를 내려 놓으며 “5불입니다” 한다. 그럼 그렇지! 현대가 어떤데... 하지만 우리는 평양소주를 달고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옆자리 제주도 아저씨가 주는 제주도 소주까지..

배에서 숙소가 해결되지 못하고 해금강 호텔도 현대 측이 열여주지 않아 절반이 넘는 농민들이 현대 직원이 사용하는 콘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해결해야 했지만 농민들의 통일의 열망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8일 아침, 또 하나의 조국의 아침공기는 너무나 깨끗하다. 온정각으로 향하는 버스 안, 모두들 행사복(운동복, 모자, 운동화)으로 새 단장하고 간밤에 못 봤던 풍경을 놓칠세라 창문에 얼굴을 대고 본다. 병아리 떼처럼 줄지어 학교 가는 아이

들, 출근하는 아저씨, 김매러 가는 농부, 피엄피엄 있는 보초병 군인아저씨까지 버스 안은 북녘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크게 소리쳐 부른다 “안녕하세요”

아침을 대충 먹고 각 도연맹 처장님들이 인솔 지도한다. 세상에 농민들이 “양팔좌우로 벌려” 구렁에 팔도 벌리고 줄도 잘 맞추어 선다. 그 순간만은 휴식도 줄지어 한다. 김정숙 휴양소로 들어 갈 때 양쪽으로 서있던 북녘 농민들이 “반갑습니다” 하며 우리 쪽으로 다가와 손을 잡고 운동장을 한바퀴 돈다.

## 개막식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님과 농근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 승상섭 위원장,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옥 회장의 개막연설에 이어 전농, 전여농, 농근맹에서 준비한 통일연설이 계속 진행되었다. 조금은 지루할 것도 같은데 남쪽의 농민들 화장실도 안가고 그대로 앉아 있다. 누구하나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이 없다. 후에 북측 민화협에서 전농의 조직성에 놀랐다고 했단다.

잠시 쉬는 시간, 어느 농민에게 말을 건네 볼까? 찾았다. 우리 일행이 뒤에 있던 세 사람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진주에서 올라온 농민들입니다”.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못 만나고, 어서 빨리 통일합시다.”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일행 중 구점숙 회원만 결혼했다. 구점숙 회원이 돼지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사정으로 그만 두었다고 얘기하였다. 남편이 무엇을 하느냐고 또 묻자 “멀리 있다”며 가방에서 남편(전농 경남도연맹 정책실장 김성원, 대장암으로 돌아가심) 사진이 그려진 엽서를 꺼내어 보여준다. “그래, 구점숙 회원은 혼자 오지 않았구나, 남편 김성원 실장님이랑 함께 왔구나.” 경남도연맹 회원들 모두 단일기가 계양될 때 고(故) 김성원 동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것처럼...!



6.15공동선언 관철을 위한 남북 농민통일대회 개최식에서 행사주석단이 입장하는 남북의 농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오른 쪽에서 첫번째가 남측 전농의 정광훈 의장, 정 의장의 바로 왼쪽이 승상섭 북측 농근맹 위원장이다.

잠시 쉬는 시간을 끝내고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먼저 남측에서 준비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전북여성농민노래단 '청보리사랑'과 '소리타래' 공연이 있었다. 근데 북의 농민들 표정이 무덤덤하다. "남측 노래가 어떻습니까?" 남쪽 노래풍이 익숙하지 않고 가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데다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내용도 이해가 되지 않는단다. 허기사 "개 값도 안 되는 게 소 값이라니 나 참 기가 막혀 말이 안나와, 빛내서 빛 값은 농민의 현실, 나 참 기가 막혀 말이 안나와"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 남쪽 농업현실을 어찌 북녘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북쪽에서 준비한 문화공연이 시작되었다. 북에서 직접 만든 옥류금 소리도 들어보고, 공연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다. 전농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진행한 통일행사 중 제일 신경을 많이 쓴 문화공연이라고 한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회자 한마디 "이렇게 기쁜 자리에 허락한다면 사회자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까" 하며 구수한 민요

가락 한곡조, 그러더니 ‘토장의 노래’를 한 곡 더 부른다. 토장이란 된장을 얘기한다고 한다.

김정숙 휴양소 근처 소나무 숲에서 밤새 북녘 동지들이 만들었다는 곱밥(도시락)을 먹었다. 개성시 농근맹 동지들이 경남 농민과 함께 하였다. 남에서 먹는 도시락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정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두들 북측 농민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다. 그런데, 도시락에는 김치가 없었다. 북에 가뭄이 많이 심했음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가뭄으로 인해 농사일을 아직 끝내지 못한 함경북도 농근맹에서는 이날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내 옆에 나이 마흔 살이라는 아저씨가 나에게 떡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떡을 먹으라고 나에게 건네준다. 내 반대편 옆에 앉은 진주농민회 사무국장님과 동갑이었는데 진주 사무국장님은 아직 노총각이고 북쪽 아저씨는 애가 둘이란다. “남북통일 앞당기고 농촌총각 장가가자!”

어디서 날라리 소리가 들린다. 점심을 먹고 난 남북농민들은 석정마을 농악대가 부르는 농악소리에 맞춰 신명나게 춤을 춘다. 그래 남북이 만나면 이렇게 즐거운 것을 누가 이들을 갈라놓았던 말인가!

## 오후 체육시간.

자주와 단결 팀으로 나누어 씨름, 윷놀이, 물건 찾아 달리기... 어릴 적 운동회 때 마을사람들 잔치가 되듯 우리는 그렇게 어우러졌다. 조금 촌스러운 복장을 한 응원단장 아저씨 응원도 잘하고요, 각종 경기마다 해설을 재밌게 하는 사회자 아저씨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고요, 그 와중에도 끼리끼리 모여 남북농민들 이야기꽃을 피우네요.

막판 통일열차를 만들어 ‘조국통일’을 외치며 맞은 편으로 오는 농민들과 손을 부딪치며 지구 끝까지 달린다. 아쉬운 작별



남북의 농민들이 체육대회의 마지막 행사인 통일열차 달리기 놀이를 하며 단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지만 내일 금강산행을 기약하며 남측농민들은 온정각으로 향했다.

그 날 저녁 각 방마다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꽃으로 밤이 새도록 통일대회는 계속되었다. 서로에게 있었던 각자의 무용담들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실과 몰랐던 사실이 합해져서 이야기들이 더욱 무궁해 진다.

그 날 저녁 술 한잔 마시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4시간 썬그라스를 끼는 것이 2시간 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쓴다는 북측농민들의 썬그라스 쓰는 이유를, 그리고 한 회원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던 철수아저씨 이야기를...

19일 아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마음 설레이며 금강산에 올랐다. 모란각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개성시 농근맹 회원들. 나는 박명화라는 농근맹 회원과 함께 금강산 탐승을 시작하였다. 나는 박명화 씨와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 금강산 구경은 뒷전이였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경남도연맹에서

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냐고 하였다. 그 질문에 정말 도연맹은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고 얼버무렸다. “아!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사업을 해야겠구나!”나 스스로 약속을 해본다.

금강산 계곡의 물들은 한결같이 퍼렇게 물들어 있었다. “물이 너무 세차게 흘러 서로 부딪혀 멍이 들어 그렇다”는 재치있는 얘기를 들으며 구룡연에 올랐다. 구룡연까지 탐승을 하고 내려오는 길 사진을 찍다보니 내 짝지 동무가 밑에서 기다리다 먼저 내려갔다. 내 짝지 동무에게서 꼭 ‘심장에 남는 사람’과 ‘민족대단결가’ 노래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쉽게 그만 나는 설봉호를 탈 때까지 결국 그 노래를 배우지 못했다.

## 폐막식

아직까지 헤어짐에 대해 무덤덤하다가 막상 폐회선언이 있자 모두들 움직이지 못한다. 정말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일까? 두 줄로 길게 늘어선 북녘농민들 사이로 지나는 남녘 농민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농민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엔 어느새 붉은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일까? 굳게 잡은 손마다 “통일될 때까지 건강하시라요”라는 인사 빠지지 않는다.

마치 김정숙 휴양소를 둘러친 쇠 울타리가 또 하나의 휴전선인양 남북농민들은 아무도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조국통일을 외칠 뿐이었다. 돌아갈 시간이 너무나 늦어진다고 어서 가자고 외치는 전농 집행부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정말로 헤어지기가 싫었다. 이제 헤어지면 우리는 또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모두 아쉬운 작별을 했다.

돌아오는 설봉호 배 안에서는 2박3일의 아쉽고 감동의 순간을 모두들 이야기꽃으로 피우느라 정신이 없다. 북녘의 땅은 점점 멀어지고 날이 어둑해진다. 멀리 속초항 불빛이 보인다

## 전농 정광훈 의장의 개막연설문

존경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승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원 여러분, 그리고 북녘 동포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조국이 분단된 지 55년 만에 성사된 남과 북 농민대중의 첫 만남은 통일의 물고를 트는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천하의 명산 금강산 자락 이곳에서 남과 북 농민들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게 된 것은 남과 북 정상 수뇌분들이 민족의 염원을 담아 함께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은 남선과 북선, 우리 민족에게는 물론 세계만방에 우리 민족의 문제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도, 간섭받지도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의 축복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나침반입니다.

우리 민족은 청나라, 일제하, 미군정 하에서 피와 학살, 수난의 역사였습니다. 108년 전 동학농민혁명 당시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부르짖던 농민군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 때부터 하나였습니다. 말도 하나요, 조국도 하나요. “나에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도 함께 불렀고 민속놀이도 함께 하였으며 시집, 장가도 오갔으며 처갓집 장모의 집, 할아버지, 할머니집도 우리 땅 우리 강산을 우리 마음대로 오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습니까? 누가 허리를 잘라놓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 민족끼리 내 땅 내가 밟으며 오갈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데 외세 거간꾼들의 농간에 의해 민족이 수난 당하는 악순환을 거듭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지, 남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은 간단 명쾌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합시다.



6.15 선언에서 담은 내용처럼 자주적으로 우리끼리 힘을 합쳐 통일 후 미래에 대한 희망의 정치가 되어야 하며, 경제정책 역시 민족의 기초산업인 농업도 민족경제의 주체적 입장에서 자주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업·농민·농촌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남북의 통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민족문화예술의 정통성과 질적으로 수준 높은 우리 것들을 중심에 세워갑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천하를 지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식인으로서 전 인류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됩시다.

6.15 공동선언이행의 실천을 위해 정치,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우리끼리 민족구성원 하나 하나가 주체가 되어 영광된 통일조국을 건설합시다. 자주적 인간, 사회적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통일세상을 이루어 냅시다.

우리농민들이 앞장서서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통일 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 농근맹 승상섭 위원장 개막연설

농민대표여러분!

나는 먼저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북남농민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남녘의 농민대표 여러분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울러 남녘의 전체 농민

들에게 보내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과 북녘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뜨거운 인사를 전합니다.

얼마나 만나기를 고대했던 우리들입니까. 얼마나 절절히 념원했던 오늘이었습니까. 분단 5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헤어졌던 우리들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열어준 자주통일의 길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6.15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만남도, 오늘과 같은 뜻깊은 통일대회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대한 대회는 통일성업의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우리 농민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음을 겨레 앞에, 민족 앞에 힘있게 과시하는 일대시위로 됩니다. 참으로 오늘의 이 감격 어린 상봉은 통일의 그 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며 조상대대로 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농민들, 오곡백과 무르익는 이 땅과 더불어 성실한 땀을 바쳐 온 농민들의 념원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 그것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고 한 지맥으로 잇닿은 통일된 3천리 금수강산에서 마음껏 농사지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농민들은 자기들의 근면성과 땀을 아낌없이 땅에 바쳐가듯이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구슬땀을 바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수천년 민족의 단합된 슬기를 떨쳐 온 이 땅우에 하루빨리 강성부흥하는 통일조국을 안아 옵시다.

나는 이번 농민통일대회가 북과 남의 전체 농민들이 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대회합으로, 온 겨레를 8.15 민족통일대축전장으로 부르는 서곡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대회의 성과를 위해 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합치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여농 김순옥 회장 개막연설

남북농민형제 여러분!

이렇게 가슴 벅차고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헤어져 살았던 우리 농민형제가 다시 만나는 부푼 기대에 하루 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남북농민형제 여러분!

반갑고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이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남북간의 통일의 열망과 그 실천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도 노도와 같은 통일의 물결을 함께 만들고자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여농이 북측농민계는 생소한 조직이라 여겨지실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의 농민들은 대책 없는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의 삶은 점점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농민의 생활은 농민의 삶으로서도 최하위요, 여성의 지위에서도 가장 뒤떨어지고 소외된 처지에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더 이상 농촌에서 살려하지 않으며, 농촌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노령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지만 우리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이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장래도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농업의 미래와 나아가 민족의 살길을 지켜나가기 위한 길에 자주적인 여성농민 조직인 전여농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북농민형제 여러분!

지난 50여 년의 세월동안 억지로 갈라진 채 우리농업은 소위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빼앗기고 무시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북측농민형제들과의 만남

을 통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농업의 균형발전으로 민족의 생명을 지켜낼 통일농업의 실현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의 살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찬 통일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외세와 악법을 우선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외세와 악법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의 불길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이 그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남북농민형제들이 이웃이 되어 함께 일하고 막걸리 잔을 나누어 마실 그 날을 준비합니다.

우리민족 하나되어 열싸안고 춤을 추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남북농민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 언제나 간직하시고 항상 몸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7월 18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 순 옥

---

2001년 7월17-19일, 북한 금강산의 '김정숙 휴양소' 앞 운동장에서 남쪽 농민 620명과 북쪽 농민 700명이 함께 모여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남쪽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북쪽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참여하였다. 8·15해방 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농민 연합행사에 참여하고 돌아온 농민의 소감을 담은 글과 개막식에서 선포된 3단체장들의 개막연설문 그리고 사진을 여기에 실었다(편집자주).